

서울시가 사랑하는 한양도성 시민 절반, 순성길 걸어봤다

한양도성, 한성부 방어위해 축소 73%, 한양도성 들어본적있다 가장 애용하는 코스 '낙산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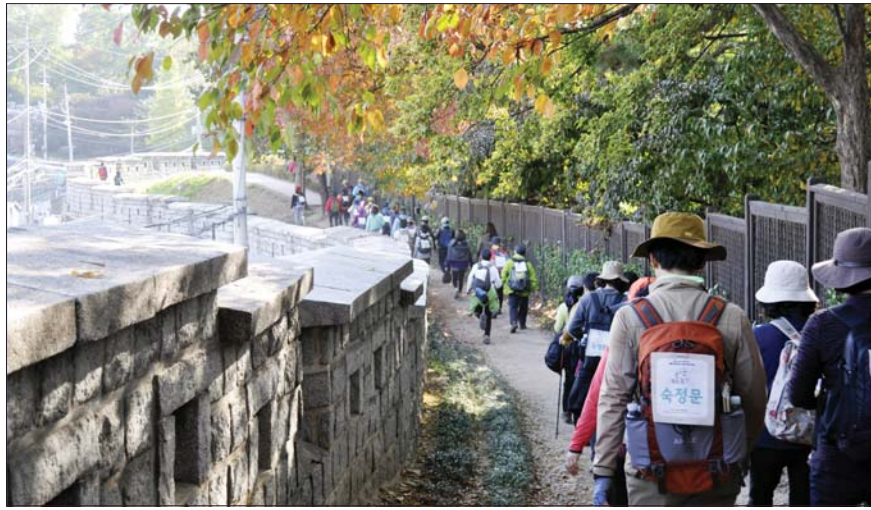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절반은 한양도성 순성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며, 이들이 가장 애용하는 코스는 낙산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4~19일 시민 3585명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0.2%가 '순성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양도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72.7%가 '들어봤고, 한양도성이 무엇인지 안다'고 답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태조 5년(1396년)에 98일 동안 전국 백성 19만7400여명을 동원해 만들었다.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선비들은 도성을 돌며 급제를 빌곤 했는데 이것이 도성민들에게 전해져 봄과 가을이면 성곽 안팎을 거닐며 풍경을 즐기는 풍습으로 자리 잡은 게 순성놀이이다.

시민들이 한양도성을 처음 알게 된



한양도성 순성길 탐방 모습. /서울시

경로는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20.1%로 가장 많았다. '신문, 인터넷 뉴스'는 19.3%,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는 17.4%, '주변을 지나가다 우연히'는 13.0%, '지인을 통해'는 9.6%였다.

한양도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선왕조 수도인 한양에 쌓은 도성이다'가 36.9%로 1위를 차지했다. '한양도성에는 사대문(흥인지문·송례문·돈의문·숙정문)이 있다'가 33.8%, '도성을 따라 산책로와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다'가 23.5%로 뒤를 이었다.

시민들이 한양도성 순성을 위해 주

로 이용한 구간은 '낙산 구간'(33.3%)이었다. 이어 '남산 구간'(24.1%), '인왕산 구간'(18.1%), '흥인지문 구간'(9.1%) 순이었다.

순성길은 ▲백악 구간(창의문~혜화문, 4.7km) ▲낙산 구간(혜화문~흥인지문, 2.1km) ▲흥인지문 구간(흥인지문~장충체육관, 1.8km) ▲남산(목격산) 구간(장충체육관~백범광장, 4.2km) ▲송례문 구간(백범광장~돈의문터, 1.8km) ▲인왕산 구간(돈의문터~창의문, 4.0km) 등 6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길이는 18.6km에 달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노인 보행사고 잦은 시설 10곳 손본다

서울시, 보행사고 5건이상 발생지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사거리, 동대문구 신이문역 주변 등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한 10곳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역, 지역 상권이 근접해 노인 보행인구가 집중돼 있으며 최근 3년 간 노인 보행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지점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골랐다. 현재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진단과 설계를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동대문구 신이문역 주변 ▲성북구 정릉우체국 주변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 앞 ▲금천구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서대문구 흥은사거리 ▲동대문구 청량리교차로 ▲장안2동 주민센터 앞 사가정로 ▲구로구 오류동역 앞 서해안로 ▲서대문구 사랑나눔복지센터 앞 ▲성북구 한성대입구

역 앞 창경궁로다.

시는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경사로 구간에는 제한속도를 낮추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무단횡단이 많은 곳에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사업지였던 영등포구 영등포시장교차로, 성북구 돈암제일시장앞 동소문로,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등 6곳의 1~5월 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작년 13건에서 올해 6건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선진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테마형 뮤지엄' 2023년까지 9개소 개관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진·한식·로봇 등 다양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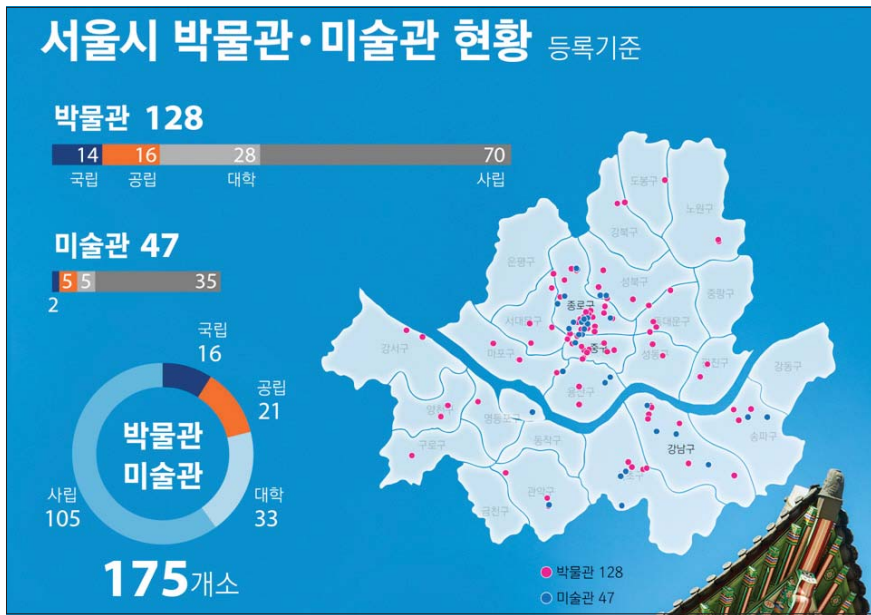
서울시는 2023년까지 사진·한식·로봇 등 다양한 주제의 '테마형 뮤지엄' 9개를 개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총 34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부다.

새롭게 생기는 테마형 뮤지엄은 ▲서울공예박물관(2020년)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2021년) ▲(가칭)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2021년) ▲한식문화관(2021년) ▲로봇과학관(2022년) ▲서울시 통합수장고(2022년) ▲서서울미술관(2023년)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풍납동토성박물관(2023년)이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시대별 대표 공예품과 근현대 명품 공예품을 전시하고, 공예 교육·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은 한양도성의 유적 원형과 발굴·보존 과정, 시대



별 축조·기술 방식을 전시한다. 성곽길을 따라 전시실을 짓고, 현재 멸실된 구간은 증강현실로 재현한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은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와 기록(미술 아카이브)을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곳으로 만들어진다.

'한식문화관'은 삼청각 리모델링을

통해 한국전통 음식 문화를 연구·보존·전시·체험하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된다.

'로봇과학관'은 도봉구 창동 상계 지역에 건립된다. AI,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로봇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로봇을 탐구하는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외국인노동자 위한 육아지원 안내서 발간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결혼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안내서'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임신기 노동자보호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제도 ▲사업주지원제도 총 8가지 분야에 대한 법제도 등이 담겼다.

센터 관계자는 "서남권역(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은 약 12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서울시 제1외국인 거주지역"이라며 "그동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안내받기를 바라는 요청이 많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은 기린들 잔치날

21일 에버랜드가 '세계 기린의 날'을 맞아 기린들에게 당근 얼음 케이크, 참외, 토마토 등의 특식을 제공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청년에 무료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는 신체·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실시간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동 스케줄 관리 상담 프로그램 ▲영양 상담 프로그램 ▲우울·불안·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중독 예방 프로그램(흡연, 음주,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등 신체·정신건강서비스 5개를 비대면 형태

로 제공한다.

만 19~39세 청년 중 서울시 소재 직장 재직자·학교 재학생·자영업자나 서울시 거주 재외동포·국내 거소 신고자·외국인 등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총 144명(신체건강서비스 80명, 정신건강서비스 64명)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